

3/31/24

설교 제목: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13 절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절관주** 롬 5:2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절관주** 갈 3:4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절입니다.

금요일 오후 3 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일 새벽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셨고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멍에인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만 해결하면 뭐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죽는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믿는 우리의 만행이 되시는 예수님이 장사된지 사흘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시간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AD 50년경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동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했으나 성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비너스를 숭배하며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년 반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론한 결과 많은 이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교회가 분란에 말려들었습니다.

파벌 싸움과 각종 윤리 도덕적, 종교적인 이슈 (불륜, 성도간의 소송, 혼인, 우상의 제물, 성찬, 성령의 은사 및 그 사용, 부활, 헌금 등) 들을 둘러싼 성도들 사이의 첨예한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교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한 후 거기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을 권면합니다.

본문은 그 중에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룬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몸과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단호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였을진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도 당연히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따라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 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온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표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계약 체결, 혼인 서약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세 증인을 내세워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그같은 규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신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리고 이 규례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규례를 만들게 하신 것은 재판이나 계약, 서약, 맹세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후세에까지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목격자들을 세워 보고 듣게
하신 후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으로 11 번이나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 16:9).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2)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다른 여자들에게 (마 28:9).

3) 베드로에게 (마 15:5).

4) 엠마오 도상의 두제자들에게 (눅 24:13-35).

- 5) 다락방에 모인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들에게 (눅 24:36-43).
- 6) 일주일 후 도마를 포함한 열 한 제자들에게 (요 20:26-).
- 7)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마 15:6).
- 8) 오백명의 형제들에게 (고전 15:6).
- 9)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던 제자들에게 (요 21:1-19).
- 10)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승천하던 모습들을 지켜본 500 여명의 사람들에게.
- 11)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대신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가장 권위가 있었고 주의 일꾼으로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 두 제자와 오백명의 형제들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언급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경우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형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을 믿지 않았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목격자 중 대부분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라고 표현하여 모자라고 부족한 자신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았을 때 마땅한 죽음이라 여기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었는데 심지어 타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까지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너희도 이 복음을 믿었다고 언급합니다.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에 따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